

학술지원 가뭄에 목타는 출판사들

학술출판기금 예산확보에 난항... 기업체들 지속적 지원사업도 기대

개정 저작권법 발효일(7월1일)이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이 법의 적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술출판사들의 위기의식도 고조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 사망한 지 50년이 안된 저자의 모든 저작물은 무조건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출판사들에게는 여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한 출판사의 편집장은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라캉, 데리다, 푸코, 아른하임, 들리즈 등 국내에 일정한 수요가 있고 비교적 활발하게 출간되던 책들이 거의 다 보호대상"이라며 "새롭게 보호해야 할 저자를 찾기보다는 보호 안해도 될 낡은(?) 저자를 찾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상황을 설명한다.

실질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 못해

이에 따라 각 출판사 나름대로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본지 188호 참조), 개별 출판사만의 노력으로는 학술출판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발효일을 3개월 앞둔 현재까지 학술출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가시화되지 않아 학술출판사들은 더욱 목이 탄다. 학술출판사들이 기대를 거는 지원책은, 작년 11월 17일 개정 저작권법 국회통과시부터 출판계가 줄곧 요청해온 학술출판기금이다. 그러나 이 기금이 아직 예산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라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문화체육부 학술진흥과의 홍성훈씨는 "현재 학술출판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에 있지만 예산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힌다. 문화체육부가 이미 신청해놓고 있는 기금이 한둘이 아니어서 재정경제원측에서는 '기금'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화체육부가 책정한 기금은 20억원. 이 '기금' 형성이 어려우면 국고지원 사업으로 방향을 돌리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늦어도 97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문체부의 입장이다.



도서관의 도서 구입 등 실질적인 수요창출을 위한 지원책이 아쉽다.

문화체육부 산하 '도서관박물관'과 예산인 농특세같은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다. 이 예산은 주로 농어촌 지역의 도서구입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도서구입시 학술도서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밖에 문체부 추천도서로 학술도서의 비율을 높이거나, 장기적인 계획하에 공공도서관의 수를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도 학술도서 수요의 확충에 얼마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금 형성이 안될 경우를 대비한 문체부의 몇가지 방안들이 학술출판의 위기를 해소하는 데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문체부 관계자 스스로도 "특단의 조치가 있을 수 없다. 결국 출판사 자체의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대기업체와 학술단체들이 연계해 학술출판진흥에 함께 힘쓰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여겨진다"는 말로 그 궁색함을 드러내고 있다.

출판금고 올해 지원예산 확정

현재 가시적으로 드러난 학술출판 지원으로는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의 학술출판 지원금으로, 1억2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출판금고의 이경수 부장은 "일단 예산은 확보됐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는 아직 결정을 보지 못했다"고 밝힌다.

현재 학술도서 전문 출판사로 꼽을 수 있는 곳은 약 20개사. 금고가 확보한 예산을

출판지원금으로 각 출판사에 지급한다고 했을 때, 대상 출판사나 책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그 액수도 많지 않아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렇다고 학술도서를 구입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운용할 경우, 구입한 학술서적을 기증하는 일이 조심스럽다. 가장 손쉬운 것이 도서관인데 그럴 경우 그나마 학술서의 주요 수요를 끊어버리는 일이 될 것 같고, 농·어촌의 경우 어려운 내용의 학술서를 읽을 사람이 있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출판금고 측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사진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이 지원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나 관련단체들의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식산업사, 문예출판사, 한울, 한길사, 나남, 일지사, 일조각 등 몇몇 학술전문 출판사를 중심으로 힘을 결집할 수 있는 모임을 가져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됐다.

이들 출판사 대표는 지난 1월 첫 모임을 가진 이후, 몇차례 더 모임을 갖고 학술출판 활성화를 위한 모임의 필요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모임의 형식이나 활동계획 등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인데, 학술출판의 문제가 단순히 출판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널리 인식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 및 학자들에게 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혹은 포럼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취재 수첩

숫자의 유혹

상대방의 시간을 잡아먹어가면서 너스레와 수다를 떨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 한다. "제 용건은 3가지인데..." 혹은 "이 제품의 장점은 첫째, 둘째,".

요약되지 않은 긴 설명을 듣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도 않고 참을성도 없는 요즘 사람들에게 숫자는 관심을 환기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언어다.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인지 요사이 나오는 책들의 제목에도 유난히 숫자가 많다. '101가지 전략'이니 '지혜 125가지' '7가지 습관' '10가지 조건' '65장면' '철학노트 196' '인물 20인'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책 제목에 등장하는 숫자들이 지니는 힘은 크다. 그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 책은 꼭 필

요한 정보들, 압축된 내용, 간단명료한 서술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바쁘고 받아들여야 할 정보의 양도 엄청난 요즘의 독자들에게 이런 암시는 유혹적이다.

모든 책이 반드시 엄숙하거나 진지할 필요도 없고 길고 지리한 서술구조를 가질 필요도 없다. 그러나 초기에는 성공학이나 처세서 등 정보위주의 책에 주로 등장하던 이런 제목들이 최근들어 역사, 철학 등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인식을 요구하는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걱정스런 마음도 없지 않다. 역사나 철학에 대한 이해가 과연 몇가지 장면이나 사건에 대한 해설, 몇몇 철학적 명제나 용어, 몇명의 인물에 대한 이해만으로 가능할 것인가. 혹시 이러한 현상이 필자들과 원고난을 짜깁기 출판으로 메꾸려는 출판사들의 안이한 자세와 가볍고 알파한 책으로만 풀리는 최근의 독서경향과 맞물리는 일은 아닌가. — 박남정 기자

